

* 다음 자료의 모든 제시문과 문제들은 이상하의 창작물임을 밝혀 둡니다. 다음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추학: 031-422-1977/ <http://cafe.daum.net/chuhak>, <http://blog.daum.net/goodking>)

중 2 및 중 3 대상 추학 실력 평가 시험 1

최근 음악 산업은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용량의 음악 파일을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 덕분에 MP3 플레이어가 출현한 것이다. MP3 플레이어는 음악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MP3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CD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CD의 경우, 구매자는 음악가나 음악의 장르를 선별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들을 선별하여 원하는 것만 구매할 수 없다. MP3의 경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원하는 음악만을 구매해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곡들을 각자의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여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또 CD 케이스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수백 장의 CD분량에 해당하는 곡들을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MP3 플레이에 넣고서 어디서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 MP3는 이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MP3 플레이어와 호환 가능한 스피커 등의 상품이 속속 개발되었다. CD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으며 몇 년이 지나면 음악 산업에서 그 위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1. 위 글의 최종 결론은? (여기서 최종 결론은 논지 전개 방식에서의 핵심 결론을 뜻한다.)

2. 위 글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의 진술들은 모두 참으로 가정하라.)

- ① MP3 플레이어는 새로운 고성능의 CD 플레이어가 출현할 때까지만 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 ② 음악의 보관 및 저장에 더욱 효과적인 CD 플레이어가 출현한 후 테이프는 음악 산업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
- ③ 컴퓨터 파일의 압축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MP3 플레이어를 대체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것이다.
- ④ MP3가 대중에게 확대되면서 MP3와 관련된 각종 장치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 ⑤ 음악 산업은 컴퓨터 등의 기술의 발전에 의존적이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맥락을 구성하는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한 용어나 표현이 정해지면, 정의는 ‘피정의항(definiendum)’과 ‘정의항(definiens)’의 논리적 구조<X =_{DF}(……)>를 갖게 된다. 피정의항은 ‘= _{DF}’를 기준으로 그러한 논리적 구조의 왼쪽에 해당하는 ‘X’이며, 정의항은 그러한 논리적 구조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다. 어떤 주어진 맥락에 등장하는 용어 ‘물’을 정의한다고 해보자. ‘물’은 피정의항이 된다. ‘물’의 의미를 정의항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주어진 맥락이 ‘물’의 일상적인 사용법과 일치한다면, ‘물’을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액체’로 정의할 수 있다(<물 =_{DF}(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액체)>). 만약 주어진 맥락이 지구상의 동식물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물’을 ‘H2O’로 정의할 수 있다(<물 =_{DF} H2O>).

3. 위 글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장은? (위 글에 함축된 내용의 주장은 정답 후보에서 배제하라.)

- ① 정의를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 ②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맥락을 구성하는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해당 맥락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갖고 있다.
- ③ 어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의로만은 불가능하다.
- ④ 어떤 용어의 정의는 주어진 맥락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 공동체의 일반 지식에도 의존적이다.
- ⑤ ‘물’이라는 용어의 정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4~5.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서기 2,500년 지구연방대는 지구와 아주 유사한 환경의 행성 P를 발견했다. 환경만 아니라 동식물들의 형태와 습성도 지구와 거의 유사했다. 그런데 개들의 습성은 유독 달랐다. 그 형태는 지구의 개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습성은 도저히 길들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지구의 개들은 (A)로 여겨진다. P의 개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의 불가능하다. P의 환경이 지구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P의 개들이 지구의 개들과는 전혀 다른 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유전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P 행성의 개들은 지구의 개들과는 전혀 다른 염색체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 후기: P 행성의 개들의 습성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구연방대는 그 개들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지구의 빈민 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그 개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 차이로 인해 생긴 변형 단백질의 확산은 지구 종족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지구연방대가 '개탓'으로 민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민중은 지구연방대를 '피개새끼'들이라 부르게 된다. 이리하여 지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지구연방대는 P 행성을 거점으로 이미 좀비들로 꽉 찬 지구 재탈환 계획을 세우니 ... To be continued!

4. <보기>의 빈 칸을 정의의 논리적 구조를 이용하여 채워 본다면?

5. <보기>의 최종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은? (후기의 내용은 무시할 것!)

인류학자: 우리는 사람들을 백인, 황인, 니그로로 분류하곤 한다. 인종 분류는 유럽이 세계 역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형성된 ‘유럽중심사관’의 산물이다. 백인 개념에 함축된 ‘백색’은 단순히 유럽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피부색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었다. 백색 개념이 유럽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우수한 지능과 도덕성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 황인, 니그로라는 인종 분류는 인종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18세기 말 생물학자 린네우스의 인종 분류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인종 유형	피부색	기질
아메리카 인디언	붉음	고집스럽고 화를 잘 냄
아프리카인	검정	부주의하고 게으름
아시아인	창백한 노랑	탐욕스럽고 산만함
유럽인	하양	창의적이고 겸손함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강대국은 여전히 유럽의 후손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거나,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곳이다. 강대국의 외교 전술이나 정치적 전략에 반감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백인, 황인, 니그로라는 인종 분류에 함축된 인종주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약소국 국민들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통계 조사는 약소국 국민들 상당수가 백색 화장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세기 경제 발달의 상징인 한국의 경우, 백색 화장품을 선호하는 남녀 평균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위 글이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학자의 글 속에 명백히 함축된 것은 배제하라.)

- ① 인종주의는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② 백색 개념은 은연중에 약소국 사람들의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인종주의 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 ④ 인종주의 관점은 약해졌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갈등은 문명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⑤ 인종 분류에 담긴 인종주의 관점은 단순히 피부색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7. 린네우스는 인종주의 관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긴 인물이었다. 이때 린네우스의 인종 분류표에 전제된 그 관점과 부합하는 것은?

- ① 기후와 풍토가 사람들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대륙별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 ③ 각 인종 유형마다 그 유형에 고유한 기질이 있다.
- ④ 피부색은 인종 분류에 유효하다.
- ⑤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에 산다고 유럽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8. 위 글을 요약해 본다면?

9. 다음 논증 형태에서 결론은?

- 문제 6의 답
- 린네우스의 인종 분류표 _____
- 결론: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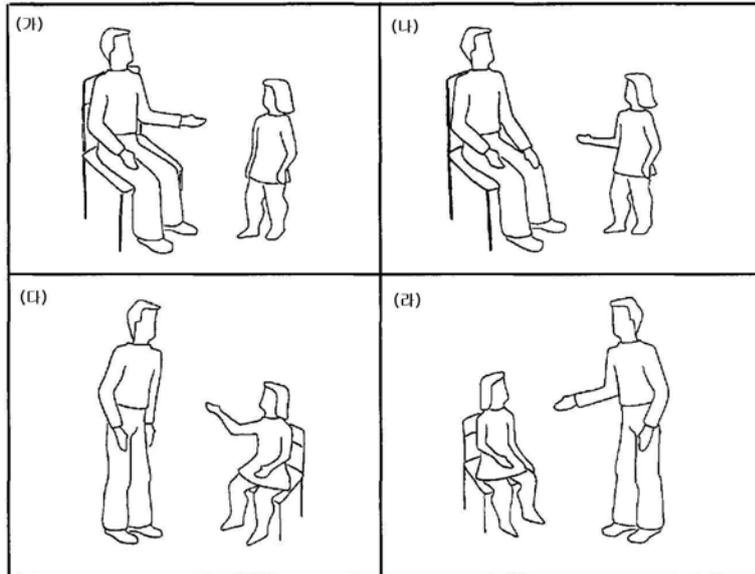
뇌 손상에 의한 언어 장애를 뜻하는 아파지아에는 크게 ‘브로카 아파지아’와 ‘베르니케 아파지아’가 있다. 1861년 브로카에 의해 발견된 브로카 아파지아는 좌측 전두엽의 계란만한 부위에 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언어 장애이다. 베르니케 아파지아는 브로카 영역의 몇 센티 뒤쪽에 위치한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언어 장애이다. 브로카 아파지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동일한 단어만 내뱉는 증상을 보인다. 반면에 베르니케 아파지아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상대방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브로카 아파지아와 베르니케 아파지아의 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아파지아	결정적 증상	해부학적 원인
브로카	(A)	(B)
베르니케	(C)	(D)

10. 위 글의 도식에서 빈 칸 (A)~(D)를 채워 본다면?

11. 의사는 언어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보기>의 시각 표상들을 보여줬다. 이때 그 환자가 브로카 아파 지어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응은?

<보기>



- ① 의사가 '의자에 앉은 아버씨가 소녀에게 악수를 청한다'라는 진술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환자는 (나)를 골랐다.
- ② 의사가 '의자에 앉은 소녀가 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한다'라는 진술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환자는 (다)를 골랐다.
- ③ 의사가 '의자에 앉은 아버지에게 소녀가 악수를 청한다'라는 진술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환자는 (가)를 골랐다.
- ④ 의사가 '의자에 앉은 소녀에게 아버씨가 악수를 청한다'라는 진술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환자는 (다)를 골랐다.
- ⑤ 의사가 '의자에 앉은 소녀에게 아버씨가 악수를 청한다'라는 진술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했더니, 환자는 (나)를 골랐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향은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초기 인류의 주된 생존 수단은 사냥이었다. 사냥의 성공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손의 수를 늘려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한 필요조건과 같았다.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특별한 상징체계로 승화시키고, 그 체계에 어떤 주술적 힘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적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들은 동굴 벽에 몇몇 동물의 사냥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크로마뇽인들의 동굴 벽화는 단순히 사냥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주술적 상징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징체계로서의 동굴 벽화에는 비슷한 것끼리 서로 공감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배어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한 행위를 '공감 주술'이라고 한다. 크로마뇽인들의 동굴 예술은 공감 주술의 일종으로 여겨져야 한다.

동굴 예술의 주술성에 대한 가설은 현재 아마존 밀림에 거주하는 부족들이 보여 주는 행동에 의해서 더욱 힘을 얻는다. 부족의 수렵인들은 토끼나 돼지처럼 땃을 놓거나 구덩이를 파서 잡을 수 있는 동물들보다는 큰 포유동물에 더 관심을 갖는다. 큰 포유동물은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추적해야 잡을 수 있다. 수렵인들은 큰 동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어떤 주술적 힘을 가진다고 믿고 자신들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한다. 또한 자신들이 사냥한 큰 동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의를 지내기도 한다.

주술성을 인간의 문화적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경 시대의 행동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우제는 그 대표적 실례라 할 수 있다. 기우제 중 부녀자들이 강가에 모여 용기에 물을 담아 나르게 하되 물을 새게 한다. 그 모양이 마치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에 주술적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청동기 문화를 살펴보면, 동물들에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토렘 신앙이 발견된다. 토렘의 대상은 존경의 대상이며 부족을 결속시키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토렘들은 부족 간 분쟁을 중재하고 때로는 부족 간의 의견 충돌을 무마하는 힘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토렘 신앙과 유사한 것을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프로 야구 팬들은 지역 연고 팀의 마스코트인 '베어스', '타이거즈' 등이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홈팀을 응원한다.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경기는 분쟁을 중재하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12. 위 글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O',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X'를 표기하라.

- (1) 주술성을 갖고 있지 않은 문화는 인간의 문화라고 할 수 없다. ()
- (2) 주술성은 오로지 집단적 행동 방식에서만 발견된다. ()
- (3) 기우제 중 용기를 사용해 물을 새게 하는 행동 방식은 공감 주술의 일종이다. ()
- (4) 공감 주술은 모든 시대의 문화에 공통된 것이다. ()
- (5) 동물들에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수렵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
- (6) 동굴 예술의 목적은 세계에 대한 심미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

13.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모든 화합물은 분자들의 특정 구조를 갖고 있다. 화합물의 성질은 그러한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열꽃은 감기 증세에 특이적인 증후군이다. 감기에 걸린 사람은 열꽃 증상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③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하여, 하얀 까마귀의 존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지난 세기에 축적된 기상 관측 자료는 인류의 중요한 보배이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 ⑤ 누구나 물에 빠진 아이를 동정한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뒷받침하는 보기들은 인류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기>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최근 인형 회사를 법원에 고발했다. 그 업체는 사르코지를 모델로 한 '부두(voodoo) 인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부두는 서인도제도에서 유래한 주술적 종교이다. 부두 인형은 특정인을 저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다. 저주하려는 사람과 유사한 인형을 만들고 바늘로 찌르면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는 믿음이 부두에 깔려 있다.

- ① 이 사례는 현대 문명의 주술성을 대표하는군.
- ② 이 사례는 공감 주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군.
- ③ 주술성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문명에도 남아있군.
- ④ 부두 신앙에서 발견되는 주술성을 토tem과 동일시할 수는 없군.
- ⑤ 부두 인형을 바늘로 찌르면 사르코지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군.

15.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기>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크로마농인들의 동굴 벽화는 교육적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아이들은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사냥감을 구분하는 법과 사냥감을 잡는 법을 배운다. 동굴 예술은 아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각 동물에 대한 사냥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행위였던 것이다.

- ① 현장에서 사냥 실력을 잘 발휘하려면 사전 학습이 필요한 법이야.
- ② 크로마농인들의 동굴 벽화가 토tem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질 수 있겠군.
- ③ 크로마농인들에게 그림은 주술적 목적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었군.
- ④ 크로마농인들의 사냥감의 수에 비해 벽화에 그려진 동물의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군.
- ⑤ 동굴 벽화가 교육적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라면, 구석기 시대의 문화에는 주술적인 특징이 없다고 해

야 하는군.

16. 위 글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